

 보건복지부	<b>보 도 참 고 자 료</b>			
<b>배 포 일</b>	2020. 5. 19.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윤 민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양 윤 석 김 성 철	전 화	044-202-3155 044-202-36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현황 및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지므로 국민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내일(5월 20일)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가 전 학년으로 이어져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1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1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4,028개소, ▲학원·독서실 800개소 등 총 25,68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강원도는 대중교통 및 이·미용업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여, 발열체크 미실시 등 4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전라남도는 다중이용업소(983개소)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4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민원창구 15개소, 유흥시설 14개소, 학원 13개소, PC방 9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94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중점홍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532개반, 1,73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9,051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6,6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3,328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어제 추가로 확인된 집합금지 위반 2개소(광주·경기 각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시설은 총 7개, 앞으로 고발 예정인 시설은 총 31개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환자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대상으로 5월 18일(월)부터 이동 검진을 실시하여, 이들을 방역 관리망 내로 편입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인천광역시는 6월 1일(월)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인증(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 하여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지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자동 삭제되도록 할 계획

○ 충청남도는 생활방역 전담조직인 생활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문화체육부지사)를 구성하여, ①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②생활방역 지침 이행 및 개선, ③문화 개선 및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충청남도는 5월 16일(토)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대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2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의 부처와 함께 마련하였다.
- 현행 지침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이다.
-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 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5월 19일) 16시에 열리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월 내에 세부 수칙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3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방안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의 에어컨 설치와 운영 지침방울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 필터 장착 등의 내용을 규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5월 18일(월) 선별진료소에 안내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에 6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하절기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감염을 최소화하면서도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확산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대비할 계획이다.

- 또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선별진료소 설치 유형 및 인력 장비 물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 5월 18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8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0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63명이다.
  - 2,62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753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7일(일) 18시 기준 대비 124명이 감소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629명 중 55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62명, 경기 142명, 인천 78명, 대구 22명, 충북 23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 자가격리 중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08건(내국인 341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으며, 5월 18일(월)에는 무단이탈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신규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없으며, 현재 19명(총 47명 착용, 28명 자가격리 해제)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1개소(2,766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5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 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